

# 유전 개발 침체로 유가급등 우려!

## 세계 석유기업 유전투자 18% 감소 전망 ... 원유 생산량 축소 불가피

국제유가 하락으로 글로벌 석유기업들이 유전개발 투자를 대폭 줄이고 있어 장기적으로 유가가 공급부족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에이(USA) 투테이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기업들이 신규 유전개발 및 생산투자를 대폭 감축하고 있다.

석유기업과 유전개발 시추장비 공급기업이 시추장비와 인건비 등을 둘러싸고 대립함에 따라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 공급부족 사태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크랜달은 “세계 석유기업들의 유전개발 투자는 2009년 들어 18% 가량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은 40% 가량 축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는 러시아 및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 등 세계적으로 수십건의 유전개발 투자가 연기되고 있다.

미국의 데본에너지는 2008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5억달러를 유전개발 및 생산비로 지출할 예정이고, 마라톤오일은 예산을 24%, 헤스는 27% 감축했다.

물론 ExxonMobil, Chevron 등 상당한 현금 보유고를 자랑하는 일부 대형 석유기업은 기존 유전개발 투자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노코필립스 등은 자본지출을 18% 줄였다.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인 파텔 카이트는 석유기업들이 유전개발 투자를 30-40% 정도 줄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석유기업들이 유전개발 투자를 줄이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2008년 7월 배럴당 14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009년 2월에는 4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신규 투자를 위한 현금 여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기존 유전들은 유가가 배럴당 30-40달러를 유지하면 이익을 낼 수 있지만 특수시추가 필요한 유전은 개발비용이 늘어나고, 캐나다의 오일샌드 개발은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형성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중반 국제유가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전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장비가격과 인건비도 4배 폭등했고, 일부 연안 시추선 임대료는 하루 70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

하지만 2008년 8월 이후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철강과 시멘트 가격이 50%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개발 장비 가격은 10%밖에 하락하지 않아 석유기업들이 장비가격이 인하되기를 기다리며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캠브리지 에너지 리서치 연합회는 석유기업들의 신규투자 축소로 5년 뒤에는 현재 원유 생산량의 9%에 해당하는 760만b/d 정도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08년 12월 전망보다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04>